

월드컵 소식

수당 받은 토고 “늙은 수탉 잡겠다”

‘마음도 비웠고 보너스 문제도 해결됐다. 프랑스를 잡아 자존심을 회복한다’ 독일월드컵 최대 ‘뉴스메이커’ 토고 축구대표팀이 24일 오전 4시 독일 쾰른 월드컵경기장에서 ‘노쇠한 아트스카’ 프랑스와 G조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내일 프랑스전 앞두고 결의 “반드시 이겨서 자존심 회복”

토고로서는 프랑스전이 독일월드컵 마지막 경기다. 아프리카 지역예선에서 한일 월드컵 8강팀인 세네갈을 넘어 월드컵 본선에 첫 진출, 다시 한번 아프리카컵 이번 연출을 꿈꿨지만 선수-축구협회 간 출전 수당 갈등과 오토 피스터 감독의 갑작스런 사

퇴 등으로 내분을 겪으며 각국 취재진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고 1, 2차전에서 한국과 스위스에 모두 저미 탈락이 확정됐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프랑스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겨 나름대로 명예롭게 퇴장하겠다는 것.

선수들은 지난 19일 밤 스위스와 2차전에서 패한 뒤 “프랑스전을 꼭 이겨야 한다. 이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 “우리의 진가를 보여줘 프랑스가 실망하도록 하겠다”, “프랑스와 경기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들을 깜짝 놀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토고 선수들의 출전 수당을 현금으로 미리 주기로 한 것도 사기를 높이고 있다. 토고가 프랑스를 꺾거나 비긴다면 한국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 이 경우 한국은 스위스와 3차전에서 지더라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훈련 중인 프랑스 팀과 레몽 도메네크 감독(맨 오른쪽).

프랑스 캠프에 ‘불협화음’

게임 운영방식 등 놓고 선수·감독간 격한 토론

독일월드컵 축구 본선 조별리그에서 3위로 처져 체면을 단단히 구기고 있는 ‘레 블뢰’ 프랑스가 선수와 감독 간 불협화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2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365’에 따르면 프랑스 대표팀의 장신 미드필더 파트리크 비에라(30·유벤투스)는 21일 베이 스캠프인 하멜른에서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기 운영과 개인별 포지션 선정 등의 이슈를

놓고 레몽 도메네크 감독과 선수들이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비에라는 “경기 운영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라면서도 “나를 포함한 선수들은 코칭스태프의 결정과 게임 운영방식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도메네크 감독에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독과 선수가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라면서 “선수들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도메네크 감독이 완고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질문에 비에라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아마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국 승리” 50%

축구토토 참가자 스위스전 전망

축구토토 참가자 중 다수가 24일 새벽에 열린 독일월드컵 G조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스위스를 2-1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포츠토토(주)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이 22일 오전 9시까지 한국-스위스전을 대상으로 축구토토 매치 17회차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가자 2만7천295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21.6%(5천885명)가 한국의 2-1 승리를 점쳤다.

이어 1-0 한국 승리(12.8%), 1-1 무승부(12.5%), 2-1 스위스 승리(11%), 1-0 스위스 승리(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종 승패에서는 한국의 승리를 내다본 참가자가 49.5%로 가장 많았고 30.1%가 스위스 승리, 20.4%가 무승부를 예상했다.

“한국 병역혜택 대상자 경계”

스위스 ‘20미누텐’ 보도

스위스를 꺾고 16강에 합류할 경우 2년여 기간 군 복무를 면제받게 될 한국 축구대표 선수 7명의 불꽃같은 투혼을 경계해야 한다고 스위스 언론이 주문했다.

스위스 일간지 ‘20미누텐’은 22일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는 “2006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G조 최종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2년을 건 승부인 만큼 이들의 절박한 투지를 알아선 안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모든 한국 남자들은 학교를 마친 뒤 24개월간 의무적으로 징집되는데 일부는 군 복무가 선수생활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병역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스위스에 승리할 경우) 한꺼번에 7명 모두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만큼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면 대표팀내 군 미필자는 특례조치를 받는다”면서 “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2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앙골라 첫골 플라비우 ‘15만 달러 집’ 포상

플라비우(27·알 알리)가 앙골라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축구에서 골을 넣은 대가로 집 한 채를 받게 됐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22일 앙골라가 라이프치히 첼트랄 슈타디온에서 열린 D조 3차전에서 1-1로 비겨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공격수 플라비우는 조국을 위해 첫 골을 터뜨린 대가로 정부로부터 미화 15만 달러 상당의 집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역시 조 꼴찌로 탈락한 이란 대표팀은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미드필더 알리 카리미(25·바이에른 뮌헨)가 3차전 출전을 거부했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온 나라를 며칠간 들쭉거리게 할 스캔들을 안고 귀국길에 올라야 한다.

이바노비치 감독은 앞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카리미에게 교체투입되기 원하자는 물었는데 그가 싫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세리 “내친김에 2연승까지” 한국의 박세리가 22일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힐골프장에서 열린 LPGA웨그먼스투너먼트 프로암대회 10번홀에서 퍼팅을 한 뒤 공을 집어 들고 있다. /연합뉴스

“울고 싶어라”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승엽(30)이 인터리그 홈런왕을 2연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전 최우수선수(MVP)와 우수선수상을 모두 놓쳤다.

일본야구기구(NPB) 홈페이지는 인터리그 후 원사인 일본생명의 협찬으로 22일 교류전 MVP와 우수선수상을 발표했다.

이승엽 ‘인터리그 수상’서 탈락 홈런왕 불구 팀성적 부진 원인

MVP는 인터리그 우승팀에서 나온다는 대회 규정에 따라 13세이브로 최다 세이브를 올린 지바 롯데 마린스의 마무리 고바야시 마사히데가 뽑혔다. 상금은 200만엔(1천660만원).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 각각 선수 한명씩이 선정된 우수선수상은 타율 0.408로 타격 1위에 오른 마쓰나가 노부히코(소프트뱅크)와 평균자책점(0.91), 다승(5승) 2관왕을 차지한 사토 미쓰루(주니치)에게 돌아갔다. 상금은 100만엔(830만원).

이승엽은 교류전에서 타율 0.360에 16홈런을 쏟아내며 발군의 기량을 과시했지만 팀성적이 13승23패로 전체 12팀중 11위에 그치는 바람에 수상권에서 멀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90분 내내 괴롭힘 당할 것”

스위스 바르네타 한국전 전망

스위스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트란클로 바르네타(21, 레버쿠젠)가 한국축구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22일 스위스 일간지 ‘20분’ 프랑스어판에 따르면 바르네타는 베이 스캠프가 차려진 바트 베르트리히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전에서 목표는 오로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네타는 “한국은 스위스를 90분 내내 심하게 괴롭힐 것”이라면서 “팀 전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광광한 긴장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분명 스위스에게 고비가 찾아올 것”이라면서 “한국전에 나서는 우리의 전략은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기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한 포겔(29, AC빌란)과 파트리크 뮐러(30, 올랭피크 리요네), 라파엘 비카(29, 함부르크 SV), 알렉산더 프라이(27, 스타드 르네) 등이 전방위 압박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한 바르네타는 “밀도있는 움직임과 좁은 공간에서 압박 등 한국을 압도할 만한 무기를 넉넉히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바르네타는 또 “한국전에서는 신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할 계획”이라면서 “사실 스위스는 한국전에서 골을 넣지 않아도 16강에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게다가 지난 두 경기만으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몇 하러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윤석민 ‘5월 MVP’ 밝은 안과 21과 광주지역 프로야구 담당기자단은 지난 21일 무등경기장에서 5월 월간 MVP로 윤석민(KIA·20)을 선정하고 상금 100만원을 시상했다. 윤석민은 5월 한달간 2승 1패 1세이브 방어율 0.81을 기록하는 활약을 선보였다. /KIA타이거즈 제공

추신수 2안타

미프로야구 마이네리그

미국 프로야구 마이네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24)가 방망이 솜씨를 뽐냈다.

시애틀 산하 트리플A 타코마 레인저스 소속인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워싱턴주 타코마 체니스타디움에서 열린 포틀랜드 비버스(샌디에이고 산하)와 경기에서 좌익수 겸 1번 타자로 나와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려 기세가 오른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90(종전 0.288)으로 높아졌다.

추신수는 1회 말 첫 타석에서 좌익수 쪽 2루타를 날려 홈루했지만 후속타 발발로 홈을 밟지 못했고 3회에도 깨끗한 중전 안타를 뽑아냈다.